

SKT 고객, 데이터 30GB 무료로 받는다

**- SKT, 다음달 1일 만19세 이상 고객에게 일괄 제공… 3월 한달동안 사용 가능**

**- 통신비 부담 경감해 민생 안정 동참… 원활한 트래픽 관리 위한 전담반도 운영**

**-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기반으로 고객 친화적인 상품/서비스 제공할 것”**

|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2023. 2. 15]**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이 오는 3월 한달간 만 19세 이상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30GB를 무료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SKT가 대규모 고객에게 다량의 데이터를 일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를 조금이라도 경감해 민생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번 시행으로 SKT를 이용 중인 만 19세 이상 3G · LTE · 5G 스마트폰 이용 고객 약 2천만명은 특별한 신청이나 절차 필요없이 3월 한달 사용 중인 요금제의 기본 제공 데이터 외에 추가로 30GB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KT는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이용 방법 및 기준 등 세부 사항을 이번 달 내로 T월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데이터 30GB는 한달동안 웨이브·유튜브·넷플릭스 등 주요 OTT 서비스 내 HD급 고화질 동영상을 30시간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용량이다.

또, 음악 스트리밍(약 300시간)이나 웹툰(약 1200화) 등 데이터를 활용해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도 모자람이 없고, 테더링이나 데이터 함께쓰기로도 활용할 수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데이터 걱정없이 이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이번 데이터 제공에 따른 트래픽 증가에도 서비스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트래픽 전담반’을 구성해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SKT 유영상 사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 데이터 제공을 결정했다”며, “SKT는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객 친화적인 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문의 : SKT PR담당**

****